



여수 송기홍



영광 서화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흥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선 박순철

# 순천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최근 순천시가 전국에서 22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기적의 놀이터, 도서관의 도시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기반 속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6년 8월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법정위원회에 가입하고 같은 해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인증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 ◇ 법률적·제도적 정비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아동친화도시 인증 규정에 맞도록 아동·청소년 참여 조항과 권리 모니터링, 실태조사, 영향평가 등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전국 22번째...유엔아동권리 협약 장치 마련

### “100년 이끌 아이들 주인 되는 도시 만들 것”



###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아동친화도시는 행정의 힘만으로 만들어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7년 4월 순천시 의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지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와

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동권리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은 지역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순천일미 회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순화

강사 지원단을 모집하여 금년 3월부터 학교별 신청을 받아 순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 ◇ 아동·청소년 참여 기회 제공

아동친화도시 첫 번째 원칙이 아동의 참여 보장이다. 아동 스스로 권리를 찾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4월 제1기 아동·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탁토론을 통해 정책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갖춘 순천시는 2017년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 보고서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심사와 보상을 거쳐 2018년 1월 최종 면담을 통해 이번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아동관련 모든 시책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아동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박차

### 구봉산 산림공원·백계산 동백특화림 조성 등 테마 관광 확대

광양시가 민선6기 4년차인 올해 매력 있고 활력 있는 경관숲과 소득 숲 조성으로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진해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한해 구봉산 산림공원과 백계산(옥룡사지) 동백특화림 단지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산림 테마 관광 확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림 조성과 정척숲 및 공공산림 가꾸기, 생활권 중심의 사방시설 확충에도 전력을 다한다.

또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취약 계층을 적극 고용해 녹색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한편, 산림자원의 활용도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시는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차별화된 산림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시 랜드마크로 급부상 중인 구봉산 일원에 관광 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한 생활권 녹색공간인 도시산림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총 19억 원이 투자되는 구봉산 도시산림공원에는 산림휴양공간과 체험 및 놀이공간, 경관감상 소풍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다양한 테마숲길 숲속놀이터, 쉼터, 경관수종 식재와 숲가꾸기도 진행해 시민들이 숲속에서 힐링하며, 자연체험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순신대교를 비롯한 산과 바다가 한 눈에 조망되는 구봉산 자락에 도시산림공원이 조성되면 숲이 막히는 도심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전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옥룡사지 동백 숲 특화단지로 조성해 지역 브랜드화한다.

이를 위해 백계산 일대에 총 20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3년간 매년 50ha의 동백나무 군락지를 확대 조성해 산림생태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백나무 잎과 꽃·종자를 활용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화·산업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 도이 되는 경제림의 규모·단지화를 추진해 산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복재생산림 30ha, 바이오순환림 10ha, 특용수 30ha, 산림재해방지조림 15ha, 큰나무공익조림 15ha, 유향토지조림 2ha, 견과류웰빙숲 6ha 등 108ha에 22만여 본의 나무 식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편백과 백합, 상수리, 두릅, 엄나무, 호두나무, 산초나무 등 경제수와 특용수를 두루 식재할 계획이다.

특히, ‘숲속의 광양’ 만들기에 대한 시민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28.~4.1. 농업기술센터 시립포장에서 열리는 봄철 꽃 축제 기간에 조경수, 특용수 등 4천여 주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와 아름답고 매력 있는 산림경관 조성을 위해 정척숲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

올해는 큰나무가꾸기 300ha, 어린나무가꾸기 50ha, 조림지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710ha 등 총 1,060ha를 대상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한다.

또 조림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림 성공률을 높이는 한편, 산림의 기능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숲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한 산물을 수집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쌀값으로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사업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실업자와 장년층 퇴직자가 참여하는 산림바이오메스직업단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양=김승권 기자

## 순천시,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격 ‘시동’

### 2022년 문화도시 지정 위한 사업 설명회 개최

순천시가 갖고 싶은 문화의 거리 그리고 2022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시는 최근 순천의료원 신관 1층 회의실에서 문화의 거리에 입주한 지역예술인 및 주민 1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문화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의미와 기본방향, 추진과정 및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올해가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원년의 해인 만큼 문화도시 실행협의체 및 문화도시 추진 사업단 발족 등 추진 체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본격적인 사업 전개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고 문화의 거리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욕구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활동 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역예술인 및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순천=김종영 기자

## 화순군, 운행차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화순군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5억 5천 만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통해 2차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가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2/3를 차지함에 따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큰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를 늘리는 데 온 힘을 쏟기로 했다.

군은 올해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3억 6천여만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100여대 1억 6천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0대 1억 8,0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3대 1,500만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일부터 접수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2005년 이전 제작된 총중량 2톤 이상인 노후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차량종류 및 연식에

따라 환경부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군민의 효용도가 좋아 접수 일주일 만에 40여대가 신청되는 등 호응도가 높다.

군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군 시행기준을 마련 중으로 12일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고해 19일부터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신청을 하려면 자격 요건 확인 뒤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업체별 지정 판매점

을 방문해 상담 후에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접수 하면 된다.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에 한하며, 화순군에 주소로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민간 법인 및 기업 등이 해당된다.

특히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가 취소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2009년 이전 등록되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소형) 경유 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신임삼, 방울도마도, 느타리버섯